

# 보도자료

세계사적 소명을 실천하는 창의적 지식 공동체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보도일	즉시		
배포일	홍보담당	홍보팀(02-880-5054, 9072)	
담당부서	행사진행: 총무과	문의	총무과(880-5092)

## 2019학년도 입학식 개최

□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는 2019학년도 입학식을 3월 4일(월) 오전 11시 관악 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하였다.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은 학부 3,438명, 대학원 3,005명으로 총 6,443명이다.

□ 오세정 총장은 입학식사에서 “대학에서 협동이란 진리를 자유로이 탐구하고, 배움을 공동체속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연대하는 일”이라며 “보다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이 사회를 보다 나은 삶의 터전으로 가꾸는데 함께 할 조력자, 함께 목표를 만들고 함께 성장할 사람들을 학창생활에서 만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학식사: 첨부1>

□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이상목 교수는 축사에서 지식과 사고력 교육의 중요성과 대학에서 학문에 정진해 나갈 것 등을 강조하며 서울대 신입생들의 입학 을 축하하였다. <축사: 첨부2> 이상목 교수는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3년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로 임용된 후, 서울대 QoLT(Quality of Life Technology) 산업기술지원센터 소장, 한국해양학회·대한지질학회 편집위원, 대통령직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장애정책조정위원회 위원, 한국보완대체의사소통학회 고문 등을 지냈다.

주요 식순

- 학사보고, 신입생 선서(화학생명공학부 이희수), 입학식사(총장), 축사(이상목 교수)

※ 붙임: 입학식사(총장, 국문 및 영문), 축사(이상목 교수)

## 【붙임1: 총장 입학식사】

### 「2019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식사

서울대학교의 새 구성원이 된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성원해 주시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가족 친지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롭게 대학 혹은 대학원 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서울대학교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혹은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지 새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주어진 지식을 기계처럼 암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는 습득한 지식을 사용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곳도 아닙니다. 서울대학교는 좋은 학벌을 가진 이들을 생산해내는 자격증 발행소 역시 아닙니다. 어떠한 기성 지식이나 통념도 자유로이 비판하는, 지적인 도전의 장이 서울대학교입니다.

대학생이 된 여러분은 상급학교 진학이라는 목전의 목표를 향해 지금까지 힘껏 달려왔겠지요. 그 과정에서 아마도 평생 가장 경직된 시간을 보내왔으리라고 상상합니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은, 그래왔던 여러분들이 이제 어쩌면 가장 자유로운 탐구의 장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떠날 무렵에는, 제대로 배운 것은 없이 학벌에나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얻은 배움을 날개 삼아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로 훨훨 날아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한층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대학이 이처럼 자유를 추구하는 곳이라고 해서, 홀로 각자도생하는 곳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배움이 경직된 지식을 암기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어쩌면 혼자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바를 얻을지 모릅니다. 원하는 바가 취직시험에 합격하는 일에 불과하다면, 어쩌면 혼자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진리를 탐구하는 일은 다른 사람과의 협동을 필요로 합니다. 토론이 그 좋은 예입니다. 누군가의 권위적인 설명을 받아 적고 외우는 데 그치지 않고, 동학들과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진전시킬 수 있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타인과 협동을 한다는 것이 꼭 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뜻 역시 아닙니다. 대학에서의 협동은 결집된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학에서 협동이란, 진리를 자유로이 탐구하고, 그리하여 얻은 배움을 공동체 속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연대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배워야 할 곳은 단지 강의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협동할 대상도 단

지 동료 학생만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협동한다는 것은 학생들끼리 협동뿐 아니라, 교수와도, 직원과도, 협동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서울대학교에서 배움의 장소가 강의실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대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생과 학생, 학생과 직원, 교수와 학생, 교수와 직원, 직원과 직원, 교수와 교수간의 상호 작용 전반이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살아있는 계기들입니다. 강의실뿐 아니라 강의실 너머 학교 전반에서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에게 배울 수 있도록, 모두 그 배움의 과정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끈다는 것은 주변에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도울 수 있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리더의 능력입니다. 타인의 도움을 바라거든, 자신 역시 남을 도울 줄 알아야 합니다. 남들이 자신을 돕고자 열망할 수 있도록, 남을 돕는 것, 이것이 리더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서울대학교는, 눈앞의 취업이나 진학을 생각하며 각자도생하는 곳이 아니라, 평생의 조력자들을 찾는 곳입니다. 자신이 보다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이 사회를 보다 나은 삶의 터전으로 가꾸는 데 함께 할 조력자, 함께 목표를 만들고 함께 성장할 사람들을 학창 생활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동료들을 위해 우리는 각자 보다 나은 사람이 될 책임이 있습니다. 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 타인에게 자극이 되고 모범이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는 서로에게 배움의 계기가 되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도 않고, 동시에 불신하지도 않으면서, 오늘부터 하루하루를 진리를 향한 열정으로 채워나가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졸업할 즈음에는 눈덩이처럼 커져 있는 자신의 역량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 과정에 함께 하겠습니다. 저 역시 제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면서 그 과정에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그러나 함께 공부하는 탐구의 전당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2019년 3월 4일

총 장 오 세 정

Welcome, new member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s my great pleasure to greet you here today, and I wish to convey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to your families and loved ones who are here with us today. I thank them for the enormous support and devotion they have provided throughout your journey to our campus.

As you newly embark on your journey as an undergraduate or graduate student here at SNU, I would like to use this moment to think together with you about what kind of place SNU is, or what it should be. SNU is not a place where one simply memorizes existing knowledge as a ladder to advance to another level. SNU is not a place where one learns to make a profit from the excellence acquired here. Nor is SNU the supplier of diplomas, the recipients of which rest assured that they have now collected the ultimate badge of excellence. On the contrary, SNU is a hall of intellectual challenge, where previous conceptions and formulations of knowledge are freely questioned and reexamined, bringing about the flourishing of new ideas and their exchange. It is where we become free through knowledge and truth.

I am sure that those of you who are undergraduate freshmen have relentlessly endeavored to achieve this imminent goal of entering college. This process, most likely, has been the most rigid and inflexible period of your life. However, your enrollment here at SNU means that you have really entered a new phase, and have begun the most liberating chapter of your life, one marked by free, unlimited inquiry. By the time you graduate and leave SNU, I hope you will have made most of your time here and freely soar high above with newly attained knowledge, experience, and wisdom, leaving behind those who merely milk the reputation of a SNU diploma. In so doing, it is my sincere wish that you all play a part in changing our world and making it a place where all are free and flourish.

That universities are where freedom is pursued, however, does not imply that each individual lives a life of seclusion, egoistically seeking one's own advantage. If learning were confined to memorizing stale knowledge, one might be able to attain one's goal by studying in isolation. If all one wanted was to pass tests and get an enviable job, one might be able to obtain the desired result by studying in seclusion. True, free pursuit of truth and growth through such knowledge requires cooperation. Consider the quintessential role of discussion as a paradigmatic example. In the process of having discussions with our peers, we come to think more clearly and develop our own thoughts, rather than merely mimicking someone else's thoughts, resting on their authority. But note also engaging in active discussions does not mean everyone must reach a single unified conclusion. Nor does cooperating with others mean everyone emerges as part of a single group with one voice. Cooperation in the

university is not a means to boast collective power. True cooperation in the university is the bonding in the goal of exploring truth unfailingly and implementing this knowledge for the good of our community.

This being the case, classrooms are not the only places we really learn. Nor should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be limited to one's peers. In truth, cooperation at SNU means much more than merely interacting with other students. It extends to exchanges and interaction with all our members, both faculty and staff. It means that we at times learn more outside of the lecture halls. It means that all of diverse, interactive relations that the members of SNU engage in—interactions between students and students, students and staff, professors and students, professors and staff, staff and staff, professors and professors—all provide live opportunities for learning and growth. The whole campus, every nook and cranny, provides opportunities for getting to know who we are and what we aspire, and I believe it is important that we all accept and participate in this broad avenue of experience, to learn from each other.

Most of you, I suspect, aspire to play a meaningful role in our society. Many who have gathered here today on your behalf also will hope that you be in positions to lead our society in the future. True leadership in my view means none other than that many of the community members are willing to offer their help. Leadership is the ability to elicit the voluntary and spontaneous assistance of others. Receiving such assistance, however, is predicated on one's willingness to help others. This helping of others is what ensures that the leader's goal is a common goal, and this commonality is the power behind the leader's charisma that motivates others to come voluntarily to the aid of the leader. In this regard, SNU is not the place where one strives in isolation to achieve the immediate, individual goal of employment or academic achievement. Rather it is the place where one finds cherished companions who grow together and identify common goals, friends that accompany one's journey in liberating one's mind, and life-long comrades in realizing this goal of making this society a better place. Each and every one of us, I believe, has a responsibility to become such a companion, friend, and comrade for those standing next to us. We all bear equal responsibility to provide occasions for mutual companionship, learning, and growth.

How best meet these responsibilities, one might ask? It is my belief that we need to find the happy medium between excessive self-confidence and debilitating self-doubt, and begin the process of following our passion for inquiry, truth, and action each and every day. We will then not be surprised to find how far we have

come and how our abilities and capacities have snowballed as we prepare for graduation. I too pledge to join you in this process. And I will perform my duties to the fullest to provide you with the optimal environment to make most of this process, learning alongside you and with you. I welcome you all once again for entering the hall of exploration where we seek freedom in knowledge, hand in hand.

March 4, 2019

Presi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Jung OH

## 【붙임2: 입학식 축사(이상목 교수)】

지구환경과학부 이상목 교수입니다. 먼저 이런 영광스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오세정 총장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분들과 외부에서 오신 귀한 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에 입학하신 새내기 1학년 여러분들과 가족들께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38년 전 서울대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상목아, 축하한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대학에 들어 갈때까지가 공부 실력이지 그 이후부터는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공부가 중요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아니란 말씀이죠. 또 남자가 40이 넘으면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게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은 아마도 공부 잘 한다고 방심하지 말라는 뜻이었던 같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을 마주하니 (하필 오늘 같이 기쁜날 이런 초치는 이야기를 하는가 싶으시겠지만) 끊임없이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매진하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제가 학자라서가 아니라, 저는 공부, 즉 복잡한 것을 생각하고 추상적인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봅니다. 나아가 저는 인생은 공부밖에 할 것이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공부를 통해 한 학문 분야에 전문가가 되면 다른 분야도 이해하는 머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장애인입니다. 선천적이 아니고 저는 나이 마흔 네 살에 교통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움직이고 뛰어다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년에 해외출장을 평균 10번 다닐 정도로 활발한 삶을 사는데 그 이유는 과학자 되기 위한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사고력 교육 때문입니다.

사고 전까지 저도 여러분처럼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죽을지도 모르고, 설령 산다고 하더라도 평생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으로 살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 처하면 과연 죽음이란게 무엇인가, 만약 산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또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 등등 우리가 평소 때 생각하지 않는 소위 근본적인 질문들(fundamental issues)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해답은 가까운데 있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학자가 되는 과정에서 받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연마한 사고법(즉 scholarship)을 바탕으로 해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책장 한장도 스스로 넘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입 앞에 있는 빨간 도구로 컴퓨터를 조작하고 이것으로 전자문서의 페이지를 넘길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세어보니 지난 12년간 아마존 킨들에서 제가 구매한 책이 어느덧 800권에 이르더군요. 오디오북까지 합치면 천권 이상입니다. 분야는 역사, 철학, 고전, 심리학, 수학, 생물학, 컴퓨터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 수 있는 것은 한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가 되면 다른 학문 분야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문은 여러분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여러분을 끌어 올리는 구원의 손길이 될지 모른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우리 인간이 원대한 우주 안에서 자기의 존재와 의미를 이해해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만이 우리의 앞길을 밝히는 유일한 빛입니다.

책을 통해 알게 된 분 가운데 Mary Evelyn Tucker란 미국 예일대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얼마전 제가 평창포럼 연사로 모시기 위해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 분이 유교를 전공하시더군요. 우리의 경우 유교에 관해 어릴적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서인지,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께 왜 전 세계에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필 유교를 택했냐고 물었습니다. 그 분 말씀은 대부분의 종교가 열반에 이르고 천당에 가는 것처럼 개인적인 구원에 치중하는 것에 반해 유교는 스스로의 학문적 연마(self-cultivation)를 통해 내세가 아닌 현재 자기 주변의 가족과 사회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밝히고자 하는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적 믿음 체계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더군요. 한마디로, 유교는 우리가 귀 따갑게 들어온 ‘수신제가치국평천하’ (修身齊家治國平天下) 를 지향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수신제가치국평천하)은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와 학문에 정진해야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참으로 뜻깊은 이유는 이러한 원대한 여정에 여러분들이 그 출발점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서울대학교 입학 을 축하드립니다.